

ML 출신 투수 영입... 내년 시즌 '윤곽'



KIA 타이거즈 윌리엄스 감독(오른쪽)이 지난 1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워터미어 수석코치(왼쪽)와 그라운드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KIA 윌리엄스 감독, 우완 애런 브룩스 영입...제구 등 강점에 적극 구애
“젊고 힘·기동력 갖춘 선수 확인” 마무리 훈련 평가...타자 터커 재계약 추진

박흥식 2군 감독 17일까지 캠프 지휘

롯데 윌리엄스 감독이 외국인 선발 한 축을 세우는 등 새 출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귀국했다.

KIA 타이거즈는 14일 ‘메이저리그 출신 우완 투수 애런 브룩스(Aaron Lee Brooks·29)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47만9000달러 등 총액 67만9000달러에 계약(이적료 별도)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인 애런 브룩스는 신장 194cm, 체중 105kg로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 마이너리그에서 8시즌 활동했다.

올 시즌에는 오글랜드 애슬레틱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 소속으로 선발과 중간계투로 18경기에 출장, 6승 8패 평균자책점 5.65를 기록하는 등 마이너리그에서 풀타임 활약을 했다.

애런 브룩스는 140km 후반대의 직구를 바탕으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투심 패스트볼을 섞어 던지며 안정된 제구가 강점이다. 완공 조절을 통한 경기 운영 능력도 뛰어나다.

그는 윌리엄스 감독의 2020시즌 구상의 중심 선수 중 하나다.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해부터 올 시즌 초까지 오글랜드에서 애런 브룩스를 지켜봤고, 영입 과정에서 적극적인



애런 브룩스

서 활약한 애런 브룩스를 불러들였다.

실력만큼이나 적응력도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에 큰 변수가 되는 만큼 익숙한 지도자와 함께한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인다.

애런 브룩스의 영입으로 외국인 선수 퍼즐은 한 조각 남았다. KIA와 윌리엄스 감독은 성실하고 상황에 맞는 배팅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높게 사 터커와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의 ‘유망주’ 점검도 끝났다. 지난달 17일 입국해 다음날부터 마무리캠프를 지휘하

역할을 했다.

올 시즌 KIA는 두 외국인 투수의 부진으로 제대로 된 순위 싸움도 못해보고 5강 꿈을 접었다. KIA의 2019시즌 실패 요인이자, 2020시즌 성적을 좌우할 카드가 바로 외국인 투수다.

구단 첫 외국인 감독으로 ‘변화의 시대’를 연 KIA는 윌리엄스 감독의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했다.

그는 “캠프 첫날부터 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선수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비시즌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선수들이 제출한 계획표대로 비시즌을 보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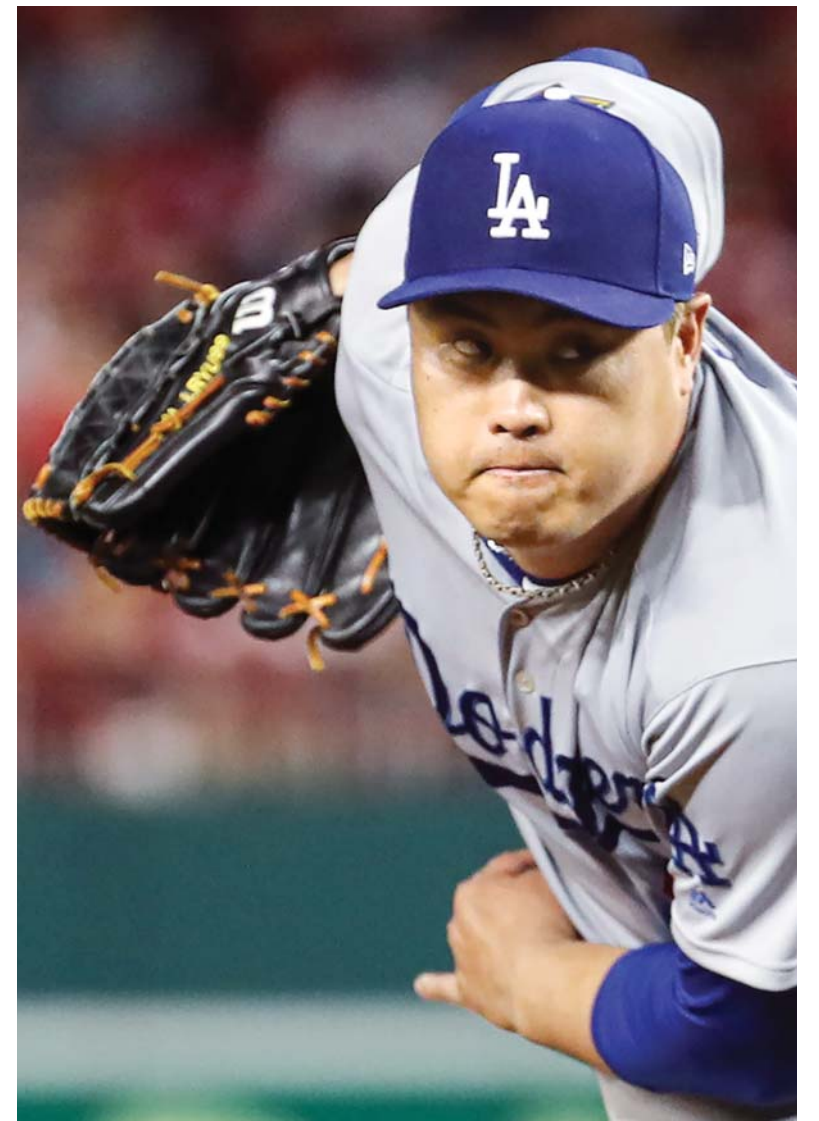
‘에이스’ 양현종의 실력은 TV를 통해 확인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양현종이 등판한(프리미어 12) 경기를 직접 TV로 봤다. 왜 좋은 투수라는 평가를 받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스트라이크 존 공략도 좋았고, 완공 조절도 뛰어났다”며 “통화도 했는데 대표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건강하게 돌아와 플로리다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미국전 선발 당시) 100% 양현종을 응원했다”고 웃었다.

한편 워터미어 수석코치와 박흥식 퓨처스 감독이 캠프가 끝나는 17일까지 선수단을 지휘한다.

/글·사진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사이영상 농쳤지만... 류현진 ‘아시아 No 1’



NL리그 88점 2위...애플 선수 최초 1위 표 받아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이 한 시즌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 수상에 실패했다. 그러나 아시아 출신 선수 최초로 1위 표를 받아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류현진은 14일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가 발표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사이영상 발표에서 1위 표 1장, 2위 표 10장, 3위 표 8장, 4위 표 7장, 5위 표 3장(88점)을 얻어 단독 2위에 올랐다.

사이영상은 1위 표 29장, 2위 표 1장으로 207점을 기록한 제이컵 디그롬(뉴욕 메츠)이 받았다. 디그롬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이영상을 받았지만, 류현진이 1위 표 한 장을 가져가면서 만장일치 수상엔 실패했다.

맥스 셔저(워싱턴 내셔널스)는 2위 표 8장, 3위 표 8장, 4위 표 6장, 5위 표 4장 72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29경기에 선발 등판해 182.2이닝을 소화하며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 탈삼진 163개, 피안타율 0.234의 성적을 올렸다.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 승수는 리그 6위다.

다저스의 7년 연속 리그 서부지구 우승에 앞장선 류현진은 정규리그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나섰고, 생애 처음 올스타에 선정돼 올스타전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의 영예도 누렸다.

그러나 디그롬에게 탈삼진과 투구 이닝, 피안타율에서 밀려 수상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 디그롬은 11승 8패, 204이닝, 평균자책점 2.43, 탈삼진 255개(전체 1위), 피안타율

MLB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 결과

	제이컵 디그롬 (뉴욕 메츠)	류현진 (LA 다저스)	맥스 셔저 (워싱턴 내셔널스)
1위 표	29장	1장	-
2위 표	1장	10장	8장
3위 표	-	8장	8장
총 점수	207점(1위)	88점(2위)	72점(3위)

올 시즌 주요 성적

	제이컵 디그롬	류현진	맥스 셔저
평균자책점	2.43	2.32	2.92
승/패	11/8	14/5	11/7
투구 이닝	204	182.2	172.1

자료/MLB 연합뉴스

0.207을 기록했다. 사이영상은 메이저리그 양대 리그 최고의 투수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전설적인 투수, 텐트 트루 사이영의 이름 따 1956년 제정됐다.

사이영상은 미국야구기자협회 회원 30명의 투표로 정하고 기자 한 명당 1위부터 5위까지 5표를 뽑는다. 1위 표는 7점, 2위 표는 4점, 3위 표는 3점, 4위 표는 2점, 5위 표는 1점으로 계산해 합산 점수로 순위를 가린다.

노모 히데오, 마쓰자카 다이스케, 다르빗스 유, 이와쿠마 하사시(이상 일본) 왕젠밍(대만) 등이 도전했지만, 아시아 선수 중 사이영상 투표에서 1위 표를 얻은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 한국 선수 중 사이영상 투표에서 득표한 건 류현진이 처음이다.

아메리칸리그에서는 저스틴 벌랜더(휴스턴 애스트로스)가 1위 표 17장, 2위 표 13장, 171점으로 같은 팀에서 뛰었던 자유계약선수 게릿 폴(1위 표 13장, 2위 표 17장, 159점)을 제치고 수상했다.

KIA 코치로 뭉치는 광주일고 빅리저 3인방

김병현,美 캠프 인스트럭터로 참여
서재응·최희섭과 선수들 훈련 지도

광주일고 출신 빅리저 3인방이 다시 모인다. 이번에는 선수가 아닌 지도자로 미국 플로리다에서 만난다.

KIA타이거즈는 내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 스프링캠프를 차리고 2020시즌을 준비한다. 새로 개편된 코치진으로 캠프로 향하게 되는 KIA에는 특별한 동행이 있다.

윌리엄스 감독의 ‘옛 동료’이자 KIA에서 KBO리그 마지막 선수 생활을 한 김병현이 인스트럭터로 2주 가량 플로리다 캠프에 함께 하게 된다.

KIA는 최근 코치진 개편을 하면서 우타자, 좌타자 전담 코치를 두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 집중’으로 빅리저까지 호령했던 김병현은 사이드암 투수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김병현이 합류하게 되면 서재응, 최희섭까지 광주일고가 자랑하는 ‘빅리저 3인방’이 다시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된다.

광주일고는 빅리저에서도 보기 드문 동문이다. 만형 서재응이 3학년일 때 김병현(2년)과 최희섭(1년)이 광주일고 선수로 뛰었고, 나란히 빅리저에 진출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07년 최희섭을 시작으로 2008년 서재응이 고향팀으로 돌아왔고, 김병현이 넥센(현재 키움)과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2014년 마지막으로 귀향하면서 빅리저 3인방이 다시 뭉쳤다.

하지만 부상과 부진으로 함께 활약한 시간은 적었고,



지난 2014년 선수로 함께 뛰었던 김병현(왼쪽)과 서재응이 스프링캠프에서 인스트럭터와 투수 코치로 재회한다.

2015시즌이 이들이 1군에서 뛴 마지막 시즌이 됐다.

2016년 동반 은퇴식을 갖고 그라운드를 떠난 서재응과 최희섭은 해설위원으로 새 출발했다가 코치로 이번 가을 다시 뭉쳤다.

마운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도미니카공화국과 호주리그에도 진출했던 김병현은 호주 멜버른 에이스스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지난 1월 글러브를 내려놓았다. 지난 6월 광주 동구 대인동에 수제 햄버거집을 차린 김병현은 방송인으로도 종종무진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KIA의 제안을 받아 인스트럭터로 또 다른 직함을 갖게 됐다. 프로에서의 지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현은 2018년 2월 모교 광주일고의 후쿠오카 전지 훈련에 참여해 인스트럭터로 후배들을 지도한 적이 있다. 인스트럭터로 KIA 유니폼을 입고 후배들을 만나게 된 김병현은 “야구장이 제일 재미있다”며 2월을 기대했다. 방송 스케줄 등으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월 중순 캠프에 합류해 2주 가량 마무리를 계획한다.

김병현은 “(서)재응이 형이 투수들 잘 관리하고 있고 나는 옆에서 도와주러 가는 것이다.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좋은 선수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좋은 선수들과 함께하면 나에게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